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이제환 · 이연옥**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II.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

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2. 일상적 고민의 유형

3.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III.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추구

1.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2.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

3.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성격

4.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한인기관과 한인매체의 유용성

I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永住를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在日韓人의 삶을 정보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정보의 영향이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각종 ‘차별과 소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재일한인의 삶을 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와 그들이 처해 있는 정보환경을 통해서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궁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3-005-A0005).

** 이제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wleeh@pusan.ac.kr); 이연옥,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disfeel@hanmail.net).

극적인 목적은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기초하여 재일한인사회의 정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재일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 연구팀은 먼저 在日韓人의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 및 이용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어, 재일한인사회가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심각성을 일본 주류사회와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정보빈곤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보빈곤과 정보환경 그리고 정보행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집단의 정보복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에 따라 우리 연구팀이 1차적으로 수행한 작업은 (1) 재일한인사회의 특성을 정보유통의 측면에서 조사하고, (2)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봉착하는 고민을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3) 이러한 정보요구의 충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와 관련한 제반 특성 등을 파악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팀은 2004년 2월과 4월에 재일한인의 최대 거주 지역으로 파악된 오사카지역을 방문하여 그곳 한인사회의 주요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학회지에 발표하였으며,¹⁾ 이어 2004년 8월에는 오사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나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오사카와는 상이한 東京지역을 방문하여 그 곳 한인사회와 한인을 대상으로 오사카지역과 동일한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관련학회지에 발표하

1) 오사카지역에 대한 방문조사의 결과는 2004년 9월에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이재환, 장덕현, 이연옥, 「在日韓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 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04, 222~248 쪽. 이 논문에서는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 그러한 고민에 대한 인식 패턴과 대처 방식,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나 매체,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나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였다.²⁾

이번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두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특히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은 무엇이며, (2) 그러한 일상적 고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3)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보원과 정보매체를 선호하며, (4)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5)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과 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연령을 비롯하여, 성별, 학력, 직업, 국적, 세대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소집단별 정보행태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는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일한인’이라는 호칭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특별영주’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을 비롯하여 일본 국적으로 전환하였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계 한인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일본에 새롭게 거주하기 시작한 한인집단인 뉴커머(new comer)³⁾를

2) 동경지역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또한 2005년 3월에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이재환,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오사카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005, 91~116쪽. 이 논문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오사카지역과는 여러 면에서 상이한 동경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제반 특성을 정리하고, 양대 지역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정보행태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재일한인사회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에 새롭게 거주하기 시작한 한인 집단을 해방 이전부터 이미 거주해 온 한인 집단(old comer)과 구별하여 뉴커머(new comer)라고 호칭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뉴커머 집단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그룹은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였으나 학업 종료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할 때, 2004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수는 약 63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1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 내외이며, 절대 다수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2~4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재일한인은 오사카와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다. 양대 지역의 한인사회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지역의 한인사회는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잔류해 온 한인(그리고 그 후손)으로 특별영주권을 갖거나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경지역의 한인사회는 해방 이후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정착을 시작한 한인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규모와 세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⁴⁾ 이러한 인구학적 측면의 차이는 정보행태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 지역의 한인을 포괄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재일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방법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오사카지역에서는 418명, 동경지역에서는 349명 등, 모두 76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⁵⁾ 면담조사

후 귀국하지 않고 정착을 시도한 경우이다. 이 그룹은 유학기간과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경과하고 일본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뉴커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본인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 영주하게 된 사람들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근자에 들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단기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일본에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삼고 체류 중인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정확한 통계의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 4) 물론 동경지역에도 해방 전부터 거주해 온 특별영주권자나 귀화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체적인 규모와 응집력에 있어 새로운 이주 집단에 비해 점차 뒤쳐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 이처럼 설문조사의 시행 방법에 있어 두 가지가 병행되었지만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방법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는 양 지역의 한인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적,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오사카에서 45명, 동경에서 20명 등 모두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한 면담지를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II.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

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설문조사에 참가한 767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남성(48.6%)이 여성(45.9%)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에 있어서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40대 이상이 57.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42.6%를 점하고 있어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주로 사무직(26.7%)과 자영업(15.9%)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국적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83.2%)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세대에 있어서는 한인 2세가 32.2%로 1세나 3세에 비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 재일한인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	남성	373	48.6	51.4
	여성	352	45.9	48.6
	무응답	42	5.5	
	합계	767/725	100	100
연령	10대	12	1.6	1.7
	20대	90	11.7	12.7
	30대	165	21.5	23.4
	40대	155	20.2	22.0
	50대	125	16.3	17.7
	60대이상	159	20.7	22.5
	무응답	61	8	
	합계	767/706	100	100

학력	중졸이하	81	10.5	12.5
	고졸	241	31.4	37.1
	대졸이상	327	42.6	50.4
	무응답	118	15.4	
	합계	767/649	100	100
직업	전문직	49	6.4	7.8
	사무직	205	26.7	32.70
	자영업	122	15.9	19.5
	서비스(기타)	54	7	8.6
	학생	47	6.1	7.5
	주부	93	12.1	14.8
	무직	57	7.4	9.1
	무응답	140	18.3	
	합계	767/627	100	100
국적	한국	638	83.2	93.3
	조선	24	3.1	3.5
	일본	22	2.9	3.2
	무응답	83	10.7	
	합계	767/684	100	100
세대	1세	142	18.5	26.6
	2세	247	32.2	46.3
	3세이상	144	18.8	27.0
	무응답	234	30.5	
	합계	767/533	100	100
지역	동경	349	45.5	45.5
	오사카	418	54.5	54.5
	합계	767	100	100

2. 일상적 고민의 유형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 설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한인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문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재일한인 사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은 성별, 학력, 직업, 국적, 세대 등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안전’의 뒤를 이어 ‘취업과 사업’, ‘육아와 교육’, 그리고 ‘노후복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적 고민이 한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기 마련인 ‘정체성’이나 ‘대인관계’ 혹은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꼽은 한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표 2> 재일한인이 마주치는 고민의 유형

구분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		가중치에 따른 고민의 비중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취업사업	182	23.7	59	7.7	18.38
육아교육	124	16.2	49	6.4	12.91
연애결혼	29	3.8	24	3.1	3.56
건강안전	207	27	142	18.5	24.16
노후복지	67	8.7	110	14.3	10.60
출세승진	13	1.7	16	2.1	1.83
여가생활	18	2.3	33	4.3	3.00
대인관계	38	5.0	112	14.6	8.17
사회참여	23	3.0	46	6.0	4.00
정체성	25	3.3	49	6.4	4.30
자아실현	21	2.7	24	3.1	2.87
무응답	20	2.6	103	13.4	6.22
계	767	100	767	100	100

이러한 고민의 유형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표 3>참고). 가령, 연령에 있어서 20~30대 사이에서는 ‘취업과 사업’으로 인한 고민이 가장 큰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이 많은 계층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민이 크게 나타났으며, 조선 국적을 가진 한인들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나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사카와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사카지역 한인의 가장 큰 고민이 ‘건강과 안전’인데 비해 동경지역 한인의 경우 ‘취업과 사업’으로 인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오사카지역의 경우 노후복지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동경지역에서는 ‘육아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표 3>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인구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민의 유형

구분(%)		고민										
		취업 사업	유아 교육	연애 결혼	건강 안전	노후 복지	출세 승진	여가 생활	대인 관계	사회 참여	경제 성	자아 실현
성	남성	22.45	12.83	4.15	25.75	9.72	2.55	2.64	8.11	4.53	4.53	2.74
	여성	15.07	15.37	3.54	26.69	12.94	1.52	4.04	8.59	4.15	4.45	3.64
학력	중졸이하	11.5	8.85	5.31	30.97	22.57	0.44	4.42	10.18	3.1	1.77	0.88
	고졸	19.88	10.60	4.50	28.74	14.37	2.03	2.76	7.55	4.21	2.47	2.90
	대졸이상	21.09	18.42	2.78	22.06	6.64	2.25	3.21	7.39	4.93	6.96	4.28
직업	사무직	20.07	14.38	6.19	25.92	6.52	2.34	4.68	6.69	4.35	5.52	3.34
	전문직	24.06	18.05	3.76	18.05	8.27	0.75	3.01	8.27	6.77	3.76	5.26
	자영업	22	12.29	3.43	27.43	10.86	1.14	0.86	7.71	7.43	3.43	3.43
	학생	27.12	19.49	5.08	11.02	3.39	3.39	4.24	11.86	4.24	8.47	1.69
	주부	11.11	22.61	0.38	29.12	12.26	1.15	6.13	8.05	2.3	3.45	3.45
	서비스(기타)	19.75	8.28	5.10	25.48	12.74	3.82	0.64	8.28	3.82	7.64	4.46
국적	무직	13.94	5.45	0.00	36.36	23.64	0.61	3.03	11.52	2.42	1.82	1.21
	한국	19.15	14.33	3.98	26.04	10.64	1.74	3.3	8.45	4.42	4.76	3.19
	조선	17.39	10.14	0.00	36.23	10.14	2.9	4.35	13.04	0.00	7.25	4.35
세대	일본	9.23	12.31	6.15	29.23	16.92	1.54	9.23	6.15	0.00	1.54	7.69
	1세	16.01	21.43	0.49	29.06	9.36	1.48	1.48	7.88	5.42	4.19	3.20
	2세	17.76	8.52	3.41	30.68	19.89	1.28	1.56	7.53	4.55	2.7	2.13
연령	3세 이상	21.67	13.79	8.13	19.46	3.94	4.43	5.17	8.87	3.94	4.93	5.67
	10대	19.23	15.38	0.00	11.54	0.00	11.54	15.38	19.23	3.85	3.85	0.00
	20대	24.90	9.39	14.29	15.92	2.45	0.82	6.94	8.57	1.63	8.57	6.53
지역	30대	25.75	21.89	4.08	17.81	2.58	3.86	1.50	7.51	3.43	6.87	4.72
	40대	16.70	24.05	0.67	25.17	4.68	2.45	5.12	8.69	6.46	3.56	2.45
	50대	18.31	7.61	1.69	34.08	15.77	1.69	1.97	8.45	4.23	3.10	3.10
지역	60대 이상	9.83	3.28	1.97	37.55	28.60	0.44	2.18	8.73	4.80	1.53	1.09
	오사카	16.25	9.42	4.92	29.50	13.58	1.33	3.92	8.75	5.42	3.33	3.58
지역	동경	23.80	19.21	2.40	21.09	8.46	2.71	2.30	8.66	2.82	6.16	2.40

3.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그렇다면 한인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와 같은 고민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71%에 해당하는 한인들이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표 4> 참고). 이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6%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고민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약 13%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일한인의 대다수는 일상적 고민을 각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혼자 짊어지고 살고 있었다. 고민의 대부분이 그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일상적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함께 풀어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여러 요인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고립감이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사카지역에 비해 동경지역에서 이러한 징후가 농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 못지않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인사회에 깊게 깔려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었다. 현지 방문조사 기간 중에 우리는 한인끼리 서로 비난하고 갈라서는 모습, 특히, 자그마한 기득권을 가진 선참자들이 후배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표 4> 재일한인의 고민에 대한 대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음	99	12.9	13.4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	526	68.6	71.0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해결	116	15.1	15.7
무응답	26	3.4	
합계	767/741	100	

한편,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5>참고). 가령,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거나 단순직일수록, 일상적 고민에 대처함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적에 따른 차이는 현저하여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조선 국적이나 일본 국적의 한인들보다 고민에 대한 대처에 있어 훨씬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동경지역의 한인이 오사카지역의 한인보다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고민의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18%)이 동경지역 응답자의 비율(7.9%)에 비해 2배가 넘을 정도로 고민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민에 대한 대처방식

구분(%)		고민해결		
		노력 없음	스스로 해결	주변의 도움
성	남성	12.80	71.90	15.30
	여성	13.20	70.70	16.20
연령	10대	0.00	100.0	0.00
	20대	11.50	75.90	12.60
	30대	9.80	76.20	14.00
	40대	13.10	69.90	17.00
	50대	14.00	72.70	13.20
	60대 이상	17.3	62.0	20.7
학력	중졸 이하	20.5	57.5	21.9
	고졸	14.30	74.00	15.40
	대졸 이상	9.8	74.5	15.7
직업	전문직	8.30	72.90	18.80
	사무직	13.80	69.00	17.20
	자영업	10.70	74.40	14.90
	서비스(기타)	13.00	77.80	9.30
	학생	6.80	77.30	15.90
	주부	14.60	71.90	13.50
	무직	18.50	61.10	20.40
국적	한국	13.70	71.10	15.20
	조선	8.70	69.60	21.70
	일본	4.50	77.30	18.20
세대	1세	10.20	72.30	17.50
	2세	15.20	67.50	17.30
	3세 이상	12.7	72.5	14.8
지역	오사카	18.00	66.80	15.30
	동경	7.90	76.00	16.10

Ⅲ.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추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소수(약 16%)만이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약 71%에 이르는 대다수는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민

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주변’은 누구이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매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의 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일한인이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① 선호하는 정보원은 누구이며, ②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무엇인지, ③ 그러한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끝에 재일사회의 주요 기관과 정보매체에 대한 한인들의 선호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주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재일한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가족(친척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고). 설문참가자의 절반이상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족(친척)을 가장 먼저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친구와 이웃 또한 고민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 나타나 혈연이나 친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나 관련기관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6> 재일한인이 선호하는 정보원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족친척	407	53.1	57.8
친구	167	21.8	23.7
이웃	21	2.7	3.0
직장동료	27	3.5	3.8
전문가	38	5.0	5.4
관련기관	44	5.7	6.3
무응답	63	8.2	
합계	767	100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이 두드러

졌다(<표 7>참고). 가령, 연령이 많을수록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과 친척과 같은 혈연적 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혹은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 사이에서 전문가나 관련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한인보다는 한국 혹은 조선 국적의 한인에게서 가족과 친척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 국적의 한인에게서는 한국 혹은 조선 국적의 한인에 비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

구분(%)		해결방법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전문가	관련 기관
성	남성	55.6	24.0	2.7	4.7	6.2	6.8
	여성	61.2	22.4	3.6	3.3	4.5	4.8
연령	10대	33.3	55.6	0.0	0.0	11.1	0.0
	20대	54.8	39.3	1.2	3.6	0.0	1.2
	30대	51.3	18.4	3.8	5.7	6.3	14.6
	40대	48.6	23.6	5.7	7.9	8.6	5.7
	50대	70.8	16.7	1.7	.8	7.5	2.5
	60대 이상	70.2	19.9	2.8	2.1	2.8	2.1
학력	중졸 이하	64.9	21.6	4.1	1.4	4.1	4.1
	고졸	66.7	21.6	3.6	3.6	3.2	1.4
	대졸 이상	52.3	22.2	3.3	4.9	8.2	9.2
직업	전문직	54.1	21.6	1.5	7.7	7.7	7.2
	사무직	56.8	15.9	4.5	6.8	6.8	9.1
	지역업	68.5	19.8	1.8	1.8	4.5	3.6
	서비스(기타)	38.1	38.1	7.1	2.4	7.1	7.1
	학생	64.0	19.8	5.8	1.2	3.5	5.8
	주부	66.7	16.7	2.1	2.1	8.3	4.2
국적	무직	54.9	37.3	2.0	2.0	0.0	3.9
	한국	58.6	22.2	3.6	4.2	5.6	5.8
	조선	68.2	27.3	0.0	0.0	0.0	4.5
	일본	47.4	31.6	0.0	0.0	10.5	10.5
세대	1세	50.0	19.0	6.3	2.4	7.9	14.3
	2세	69.0	21.7	0.9	2.7	4.4	1.3
	3세 이상	65.2	23.9	0.0	3.6	5.1	2.2
지역	오사카	71.4	19.3	1.5	2.7	3.7	1.5
	동경	39.5	29.8	5.0	5.4	7.7	12.7

한편, 지역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만을 놓고 보면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각 정보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양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오사카지역 한인의 선호도가 71%로 압도적인데 비해 동경지역 한인의 선호도는 약 3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역으로,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동경지역 한인(20.4%)이 오사카지역 한인(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동경지역의 한인이 오사카지역의 한인에 비해 전문가나 관련기관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

앞서 우리는 대다수의 한인들이 당면한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면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된다. 그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는 당면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일한인은 당면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떤 매체를 선호할까?

다음의 <표 8>은 재일한인이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선호하는 정보매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문, 잡지, 책, TV,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일상적 정보매체 중에서 재일한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인들 중에서 31%가 넘는 226명이 인터넷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에 이어 신문, TV, 책 등의 순으로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잡지나 라디오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아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8> 재일한인이 선호하는 정보매체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신문	221	28.8	30.7
잡지	35	4.6	4.9
책	82	10.7	11.4
라디오	11	1.4	1.5
TV	146	19	20.2
인터넷	226	29.5	31.3
무응답	46	6	
합계	767/721	100	

정보매체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를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분석해 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난다(<표 9>참고). 연령, 연령과 학력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 매체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가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에 대한 선호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적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의 한인 사이에서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조선 국적의 한인 사이에서는 신문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오사카지역과 동경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오사카지역의 한인이 가장 선호하는 일상적 정보매체는 신문, TV 그리고 인터넷의 순이었으나, 동경지역의 한인 사이에서는 인터넷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전통적 매체인 신문과 TV는 훨씬 낮은 비중의 2, 3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

구분(%)		정보원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인터넷
성	남성	37.20	5.40	10.20	2.00	12.80	32.40
	여성	23.10	4.50	12.90	1.20	26.90	31.40
연령	10대	8.30	8.30	8.30	0.00	33.30	41.70
	20대	9.20	12.60	13.80	0.00	17.20	47.10

	30대	15.90	3.80	15.90	0.60	14.60	49.00
	40대	17.30	6.00	11.30	1.30	17.30	46.70
	50대	43.10	3.40	11.20	3.40	25.00	13.80
	60대 이상	62.3	2.1	4.1	2.7	24.6	4.8
학력	중졸 이하	59.2	2.6	3.9	1.3	26.3	6.6
	고졸	34.80	5.70	11.90	2.60	25.10	19.80
	대졸 이상	19.7	5.4	13.4	1.3	12.4	47.8
직업	전문직	25.50	4.30	12.80	0.00	10.60	46.80
	사무직	19.70	7.30	13.50	1.00	14.50	44.00
	자영업	42.40	4.20	11.90	4.20	19.50	17.80
	서비스(기타)	37.30	7.80	5.90	3.90	17.60	27.50
	학생	6.80	9.10	15.90	0.00	11.40	56.80
	주부	26.70	0.00	11.10	2.20	32.20	27.80
	무직	47.10	3.90	5.90	0.00	35.30	7.80
국적	한국	28.40	5.10	11.60	1.80	20.20	32.80
	조선	54.50	4.50	4.50	0.00	9.10	27.30
	일본	31.80	4.50	9.10	0.00	22.70	31.80
세대	1세	25.60	2.30	10.50	3.00	20.30	38.30
	2세	49.60	3.90	8.70	2.20	20.00	15.70
	3세 이상	17.4	8.0	13.0	1.4	21.7	38.4
지역	오사카	38.80	5.00	8.80	1.80	24.20	21.40
	동경	20.70	4.60	14.50	1.20	15.40	43.50

3.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성격

그렇다면 재일한인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선호하는 이와 같은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실체는 무엇인가? 가족을 제외하고 그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즉, 친구,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전문가)은 누구이며, 정보를 얻고자 찾아가는 기관은 어디이며,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매체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은 한국인(조선인)인가 혹은 일본인인가? 그들이 방문하기를 선호하는 기관은 한인기관인가 혹은 일본기관인가?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한국(조선)매체인가 혹은 일본매체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표 10>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볼 때 재일한인은 ‘사람’에 있어서는 같은 한인동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이나 매체에 있어서는 일본기관과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체의 경우 일본 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월등히 높았다. 각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10>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성격

구분	사람			기관			매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조선)	378	49.3	57.0	260	33.9	41.2	151	19.7	25.5
일본	285	37.2	43.0	371	48.4	58.8	441	57.5	74.5
무응답	104	13.6		136	17.7		140	18.3	
합계	767	100		767	100		767	100	

1) 사람에 대한 선호도

전체적으로 볼 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 상대로 일본인 보다는 한인동포(한국인 혹은 조선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57% vs. 4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경향을 보였는데, 가령, 연령이 많을수록 한인동포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본으로 귀화한 한인들 사이에서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종사자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한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비전문 서비스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흥미로운 경향은 세대에서 나타났는데, 세가 거듭될수록(가령, 1세보다는 2세가, 2세보다는 3세가)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3세 이상의 경우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가 한인동포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동경지역 한인들이 오사카지역 한인들에 비해 동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2) 기관에 대한 선호도

사람에 대한 선호도와는 달리 기관에 있어서는 일본기관을 한인기관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vs. 41%).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노출되었는데, 가령, 학력에 있어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사이에서는 한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사이에서는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적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선 국적의 한인의 경우 한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2배 이상 높았으나 귀화인이나 한국 국적의 한인 사이에서는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대에 있어서도 세가 거듭될수록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오사카와 동경 모두에서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동경지역의 경우 그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한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오사카 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3) 매체에 대한 선호도

정보매체의 경우,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한인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5% vs. 75%).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세가 거듭될수록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직업의 경우는 비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와 무직자들 사이에서 특히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가장 흥미로운 차이는 지역에 따라 나타났는데, 오사카 지역에서의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동경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양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재일한인이 정보를 구하고자할 때 이렇듯 특정 정보원이거나 정보매체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설문조사의 결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어(소통의 용이함)’와 ‘접근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가 넘는 응답자가 ‘언어소통의 용이함’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어 재일한인이 정보를 추구함에 있어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정보의 양과 질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사생활보장이나 비용과 같은 변인은 그다지 영향을 미

6) 재일한인의 다수가 정보의 질보다는 정보의 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정보소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선호이유 1		선호이유 2		가중치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접근성	196	25.6	157	20.5	23.86
언어소통	270	35.2	168	21.9	30.77
정보의 양	135	17.6	160	20.9	18.69
정보의 질	21	2.7	50	6.5	4.00
사생활보장	11	1.4	15	2.0	1.61
비용의 경제성	7	0.9	30	3.9	1.91
부응답	127	16.6	187	24.4	19.17
합계	767	100.0	767	100.0	100

‘언어의 사용’에 있어 재일한인은 전반적으로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일상적 언어로 훨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명 중에서 거의 세 명 꼴로 일본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어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국적, 세대,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단지, 학력이 높을수록, 2~3세보다는 1세 사이에서 한국어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지역별 통계에서 나타났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일본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약 84%로 한국

는 점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정보의 질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한인이 양 지역 모두에서 5% 내외를 점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의 질보다는 양을 선호하는 사람이 2~3배나 높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왔다. 주지하다시피, 특정 집단의 정보행태에 관한 사례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이 정보원이나 매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왔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의 일단은 심층면담에 참가했던 60여 명의 녹취록을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 재일한인사회에는 정보 자체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일상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아예 체념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다보니 정보의 ‘질’은 차치하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늘 아쉽기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는 고사하고 정보 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정보 빈곤층이 재일한인사회에는 너무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러한 현실을 계량적 수치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다.

어를 선호하는 사람(12%)에 비해 압도적이었으나, 동경지역의 경우 한국어어를 선호하는 사람(약 44%)이 일본어를 선호하는 사람(56%)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아 양 지역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접근성’ 또한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었는데, 특히, 사람이나 기관과 같은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접근성’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 변수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접근성’은 단순한 물리적 혹은 지리적 근접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접근성’은 ‘호감이나 신뢰감이 느껴져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접근하여 고민을 털어놓기가 수월한 상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처럼 물리적 접근보다는 심리적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그들은 정보원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었다. 심층면담에서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민의 상담자로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민단이나 영사관보다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상담기관으로 선호하는 이유도 이러한 심리적 접근성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토로하였다.

<표 1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의 영향 요인

구분(%)		선호이유					
		접근성	언어소통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사생활보장	비용의 경제성
성	남성	29.41	38.59	21.95	5.51	1.84	2.70
	여성	30.11	37.07	24.09	4.49	2.36	1.89
학력	중졸이하	23.86	43.75	27.27	1.14	1.14	2.84
	고졸	23.63	43.52	24.51	3.91	3.02	1.95
	대졸이상	36.23	32.30	21.22	7.03	1.43	2.03
직업	사무직	35.64	35.64	19.01	4.75	2.77	2.18
	전문직	33.58	36.57	23.88	3.73	0.00	2.24
	자영업	24.25	35.22	28.57	7.97	1.99	1.99
	학생	34.15	36.59	21.14	4.88	0.81	2.44
	주부	32.50	33.50	24.00	6.50	1.50	2.00
	서비스(기타)	24.11	43.26	24.11	6.38	1.42	0.71
	무직	19.85	46.56	25.95	1.53	3.82	2.29
국적	한국	30.92	36.73	22.79	5.16	2.13	2.26
	조선	25.81	41.94	30.65	0.00	0.00	1.61
	일본	26.67	35.00	26.67	5.00	6.67	0.00

세대	1세	38.29	30.58	18.46	7.44	2.48	2.75
	2세	23.16	40.35	28.60	4.39	1.93	1.58
	3세 이상	27.73	47.49	19.76	0.88	2.95	1.18
연령	10대	33.33	40.74	18.52	7.41	0.00	0.00
	20대	25.88	47.37	21.93	1.75	1.32	1.75
	30대	38.04	33.49	17.94	6.22	1.67	2.63
	40대	34.54	32.47	20.62	7.47	2.32	2.58
	50대	21.82	42.02	27.69	4.56	1.63	2.28
	60대 이상	25.21	37.96	27.76	3.12	3.68	2.27
지역	오사카	24.30	42.29	28.37	1.50	2.14	1.39
	동경	34.77	33.80	17.82	8.42	1.84	3.35

한편,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이 나타났다(<표 12>참고). 연령,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나 무직자의 경우 ‘정보의 양’이 접근성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인 1세의 경우 특히 30~40대의 연령층에서는 접근성이 언어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적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본으로 귀화한 한인의 경우 정보의 양 못지않게 정보의 질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비해, 조선 국적의 한인의 경우 정보의 양을 중요시 하면서도 정보의 질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변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났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언어소통의 용이성’,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나, 동경지역에서는 ‘접근성’, ‘언어소통의 용이성’ 그리고 ‘정보의 양’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 1, 2위의 순서가 뒤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언어의 비중과 관련하여, 뉴커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동경지역의 경우에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지만,⁷⁾ 올드커머가 압도적으로 많은 오사카지역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난 점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⁸⁾

7) 동경지역의 뉴커머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팀은 뉴커머 특히, 거주기간이 짧았던 뉴커머에게 있어 일본어 구사 능력의 한계는 일본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문은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5. 한인기관과 한인매체의 유용성

앞서 논의하였듯이, 재일한인 사이에서 일본기관이나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한인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 내는 정보매체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인사회를 삶의 주요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인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이 남달리 강한 한인들, 일본사회로부터 차별과 홀대를 경험한 한인들,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이나 북한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 이에 더해, 한인사회 내부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빈곤층이나 노인층에게는 비록 품질이 열악하더라도 한인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 내는 매체는 정보소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⁹⁾

이에 더해,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도, 비록 그 콘텐츠의 한계와 검색기능의 조악함에 대한 불만은 있더라도, 재일한인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소스로서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흥미롭게도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한 기

분석해 본 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오사카지역의 설문참가자 중에서 60~70대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로 동경지역(12%)보다 2배가 넘는 수치였다(이러한 수치는 오사카와 동경 지역 한인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에 더해, 고졸이하의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약 69%로 동경지역(44%)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러한 저학력 고령자 중에는 언어(일본어 든 한국어든)의 해독 능력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이처럼 그들이 안고 있던 언어 장애는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오사카지역의 노인복지시설(사랑방)과 교토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루화)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방 전 강제 징용이나 징집 등에 의해 끌려온 한인 노인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문맹자였으며 생존을 위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들 대부분은 문맹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9) 예를 들어, 민단본부에서 발행하는 『민단신문』, 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나 KMJ에서 발행하는 『SAJ』와 같은 기관지나 잡지 혹은 회보 등은 비록 발행량은 적지만 꾸준히 발간되어 유통되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재일한국청년회의 『안녕』, 한통련의 『민족시보』, 재일한국민주여성회의 『보랏빛』, 민족교육문화센터의 『한길』 등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었다. 또한 『통일일보』나 『Korean News(齊民日報의 일본어 요약판)』 같은 신문들은 발행부수만 몇 만을 헤아릴 정도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관에 대한 방문조차 꺼리는 한인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소스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¹⁰⁾

<표 13> 정보소스로서 한인기관과 매체의 유용성

	한인기관		홈페이지		한인매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도움	127	16.6	168	21.9	206	26.9
조금 도움	289	37.7	326	42.5	305	39.8
도움 안됨	237	30.9	181	23.6	160	20.9
무응답	114	14.9	92	12	96	12.5
합계	767/653	100	767/675	100	767/671	100

한편, 한인기관과 그들이 생산해 내는 매체의 유용성에 있어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14>참고). 연령,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대가 낮을수록(즉, 3세나 2세보다는 1세에서) 한인기관과 한인매체 그리고 그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차이도 눈여겨 볼만하였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 사이에서 한인기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조선 국적의 한인과 일본 국적의 한인이었다.

한인기관과 한인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났다. 울드커머 중심의 오사카지역의 경우 한인기관이나 매체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이 현저히 낮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의 경우 한인기관과 매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 내외에 이를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울드커머 중심으로 구성된 동경지역 한인사회의

10)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의 관심은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열해 놓은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해 놓은 가상공간 속의 '의사소통의 장'에 쏠려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들만의 가상공간에서 '제한한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일상적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한 고민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말이다.

주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뉴커머 집단의 응집된 불만이 이러한 결과에 부정적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인기관과 매체의 유용성

구분(%)		한인기관			홈페이지			한인매체		
		매우 도움	조금 도움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조금 도움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조금 도움	도움 안됨
성	남성	20.20	43.60	36.20	21.60	50.50	27.90	30.00	43.50	26.40
	여성	17.50	46.80	35.70	28.70	44.90	26.40	32.20	46.90	20.90
연령	10대		77.80	22.20	30.00	50.00	20.00	45.50	27.30	27.30
	20대	29.90	45.50	24.70	38.10	48.80	13.10	45.80	44.60	9.60
	30대	16.60	42.80	40.70	23.80	39.70	36.40	25.00	37.20	37.80
	40대	11.90	41.00	47.00	20.00	41.40	38.60	23.20	44.40	32.40
	50대	22.20	44.40	33.30	22.40	52.30	25.20	34.20	48.60	17.10
	60대 이상	21.5	49.2	29.2	25.4	57.7	16.9	31.8	55.0	13.2
학력	중졸이하	25.0	53.1	21.9	32.8	55.2	11.9	47.1	44.1	8.8
	고졸	19.90	50.20	29.90	31.00	49.00	20.00	39.40	46.90	13.60
	대졸 이상	15.5	40.0	44.5	18.2	43.9	37.8	20.6	43.3	36.1
직업	전문직	22.70	34.10	43.20	23.90	41.30	34.80	22.20	48.90	28.90
	사무직	19.40	45.10	35.40	29.50	42.60	27.90	31.10	42.20	26.70
	자영업	23.10	37.50	39.40	16.70	58.30	25.00	28.80	48.10	23.10
	서비스(기타)	24.50	44.90	30.60	26.50	40.80	32.70	28.00	46.00	26.00
	학생	21.40	47.60	31.00	25.60	51.20	23.30	36.40	36.40	27.30
	주부	7.90	56.60	35.50	18.80	48.80	32.50	23.20	52.40	24.40
	무직	16.70	50.00	33.30	31.40	54.90	13.70	44.90	44.90	10.20
국적	한국	18.50	44.70	36.70	24.80	46.70	28.50	31.20	43.80	25.00
	조선	26.30	42.10	31.60	22.70	63.60	13.60	26.10	65.20	8.70
	일본	19.00	57.10	23.80	25.00	45.00	30.00	10.00	70.00	20.00
세대	1세	16.90	43.80	39.20	16.90	43.80	39.20	18.90	45.50	35.60
	2세	19.90	49.50	30.60	19.90	49.50	30.60	34.20	52.00	13.90
	3세 이상	30.3	41.3	28.4	42.7	43.5	13.7	51.6	33.6	14.8
지역	오사카	26.90	49.70	23.40	39.00	57.50	3.60	52.70	45.90	1.40
	동경	12.30	39.00	48.60	8.60	37.70	53.70	6.00	44.90	49.10

IV. 결론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제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은 무엇이며, 그러한 일상적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러한 정보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가 밝혀낸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는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흥미를 끌만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부각되고 있다.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정보행태적 특성뿐 아니라 인구학적 변인과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 내부의 차이 또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정리로 마무리를 짓고, 보다 세밀한 분석과 해석은 다음 단계의 연구에 남겨두고자 한다.

단지,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하나의 의문은 “재일한인에게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의 소극성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본 현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재일한인은 지니고 있는 정보요구에 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활용하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에 대한 탐색 및 활용에 있어서의 소극성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이 풍족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연구팀이 현지 방문을 통해 나름대로 관찰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일한인사회에서는 일상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유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연구팀이 이 논문에 이은 과제로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택하고 또 한번의 현지 방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행태가 소극적인 이유의 일단을 그들의 정보마인드(정보의 일상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그들이 처해있는 정보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특히, 그들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열악함이 정보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리고 정보추구행태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주요 변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진위는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특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지역적 차이에 따른 특성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재일한인의 정보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주요어: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원, 정보매체, 재일한인, 재일동포.

참고문헌

- 이제환 · 이연옥 · 장덕현,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5(2), 2004, 273~296쪽.
- 이제환 · 장덕현 · 이연옥, 「在日韓人の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 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04, 222~248쪽.
- 이제환,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오사카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6(1), 2005, 91~116쪽.
- Agada, J., "Inner-City Gatekeepers: An Exploratory Survey of Their Information Use Environ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 1999, pp.74~85.
- Baldwin, J.R. & Hunt, S.K.,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 Intercultural and Intergroup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2), 2002, pp.272~286.
- Case, Donald O.,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2002.
- Chatman, E.A., "The Information World of Low-Skilled Worker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 1987, pp.265~283.
- Chatman, E.A.,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 1991, pp.438~449.
- Dervin, Brenda & Nilan, M., "Information Needs and Us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1, 1986, pp.3~33.
- Harris, Roma and Patricia Dewdney, *Barriers to Information: How Formal Help Systems Fail Battered Women*, Westport, CT: Greenwood, 1994.
- Johnson, J.David, "Barriers to Information Seeking or the Benefits of Ignorance". In *Information Seeking: An Organizational Dilemma*, Westport, CN: Quorum Books, 1996, pp.69~98.
- Liu, Mengxiong and Bernice Redfer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Multicultural Students: A Case Study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997, pp.348~354.
- Riley, C., *Foreign Language Barrier in Information Transfer at the University*

of Tasmania, ASLIB Proceedings 44, 1992, pp.331~340.

Savolainen, Reijo,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 1995, pp.259~94.

Spink, Amanda and Charles Cole, "Information and Poverty: Information-Seeking Channels Used by African American Low-Income Househol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2001, pp.45~65.

Abstract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Lee, Jae-Whoan · Lee, Yeon-Ok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veryday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Employing survey and interviews methods, it attempts to illustrate some features in their everyday information need and seeking pattern, to scrutiniz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information behavior among various sub-groups of the Korean Community. In details, the discussion includes (1)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everyday concerns and agony, (2) the attitudes and methods to meet with such concerns and agony, (3)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urces which they prefer to satisfy with their information needs, (4) the factors which have impacts on their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 and finally (5) the usefulness of major organizations and information media in the Korean Society as everyday information sources.

*** Key Word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Japanese, Koreans in Tokyo, Koreans in Osaka.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0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